

THE MUSICAL

October 2009

이탈리아 아르테미스 무용단의 <이상한 사람들 - 페데리코 펠리니를 위하여>(10월 19일 8시 예술의전당 토월극장)는 제목 그대로 이탈리아의 명감독 페데리코 펠리니의 작품 세계를 무용으로 재해석한 공연이다. 그의 대표작 중 <갈>, <나는 기억한다>, <달콤한 인생>, <인터뷰>, <카사노바>, <8과 1/2> 등 여섯 편의 영화가 니노 로타의 음악과 함께 무대 위에서 춤과 애니메이션으로 그려진다. 펠리니가 영화 속에 애진하게 담아냈던 순박한 사람들의 삶은 무대 위에서 표현주의적인 기법으로 재현된다. 노골적이지만 유머러스한 성적 묘사가 넘쳐나는 애니메이션이 공연 중에 상영되어 색다른 효과를 더한다. 뮤지컬 <나인>과도 비교해볼 수 있는 작품이다.

그 밖에 관심을 모으는 작품으로는 출판작 중 최고의 티켓 판매율을 자랑하는 이사벨 바온 플라멩코 무용단의 <리 뿌에르따 아비에르따 - 열린 문>, 태양왕 루이14세 이전에 세계 최초의 전문무용수 겸 왕으로 처용무의 달인 연산군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축제의 땅의 <왕의 춤>, 한국 현대 무용의 현재를 보여주는 '우리 춤 빛깔 찾기14'가 있다. 이 섹션에서는 2005년 브누아 드 라 당스 안무상에 노미네이트 되어 볼쇼이 극장에서 갈라 공연을 했던 안성수의 <음악그리기>와 창무회를 이끄는 김선미의 <볼레로>.



자유분방한 미니멀리즘을 보여주는 강혜련 댄스 프로젝트의 <페이딩 어웨이>가 연이어서 무대에 올려진다.